



## 회원사동향

### 현대중, 미니 발전소 해외수주 활발

현대중공업이 해외시장에서 잇따라 컨테이너형 미니발전소(Packaged Power Station) 수주에 성공, 이 분야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연말 국내업체 최초로 컨테이너형 미니발전소를 수주한데 이어 최근 도미니카공화국의 최대 전력생산업체인 하이나라로부터 컨테이너형 발전소 2기를 수주했다.

발전용량도 3천kW로 9천여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8월경 도미니카공화국의 페더날과 만자닐로(Pedernales & Manzanillo)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발전설비는 40피트의 컨테이너에 담겨져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견인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또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연속 운전이 가능하며 중유(重油)를 사용할 수 있어 운영비가 싼 것이 특징이다.

컨테이너형 미니발전소 소규모 자가발전에 적합한 설비로 중남미,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발전·송전시설이 취약한 지역이나, 가뭄이 잦아 수력발전이 불가능한 국가들의 상시발전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컨테이너형 발전소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해외시장 수주활동에 들어가 현재 도미니카, 온두라스 등 상당수 국가와 2만kW 상당의 물량 수출을 협의중이다.

### PLC용 위치결정모듈 개발

LG산전(대표 김정만)은 최근 PLC용 고기능 위치결정모듈(APM:Advanced Position Module) <사전> 6종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고기능 위치결정모듈(APM)은 위치제어 전용 에이직(ASIC)을 탑재해 제어 연산 처리속도가 크게 향상됐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제어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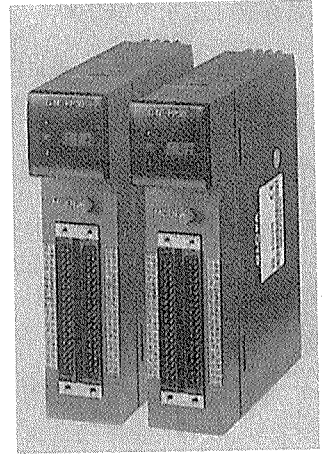
고속 모터 제어(최대펄스출력:1Mbps)가 가능해 졌다.

이 제품은 또 부드러운 가·감속 및 외부기동 기능 등 다양한 제어기능을 내장했으며, 윈도우즈(Windows) 환경에서 손쉽게 위치 파라미터 기능을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기능을 갖고 있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LG산전 마케팅 담당자는 “개발착수단계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해 이를 제품개발에 반영했다”며 “주요고객에 대한 신제품 순회세미나 및 필드테스트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이미 여러 업체들로부터 제품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G산전은 이번 고기능 위치결정모듈

(APM)의 출시로 관련분야에서의 매출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올 상반기 중으로 GM6/K200용 6종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 LG산전, 中·베트남서 흑자

LG산전(대표 김정만)은 해외 현지 생산법인의 지난해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중국 다렌법인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한 1,464만달러, 순이익 역시 15% 신장한 86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베트남 법인도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30% 신장한 620만달러를, 순이익은 27% 증가한 5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수출실적도 1,59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올해 수출예상 실적은 지난 해보다

24% 신장한 1,97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LG산전 상무는 “베이징올림픽 유치, 서부지역 대 개발 추진, 전력현대화 추진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국은 향후 5~6년간 매년 8~10%의 신장이 예상된다”며 “플랜트시장 집중공략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 하겠다”고 말했다.

## 케이디파워, 지능형 수배전반 에너지이용합리화 품목 지정

전력벤처기업인 (주)케이디파워(대표 박기주 www.kdpower.co.kr)는 최근 지능형 수배전반(사

진)이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고시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금지원 품목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능형 수배전반은 특고압에서 직접 저압으로 변압하는 수배전시스템내에 디지털전력계측제어기를 탑재하여 피크와 역률을 비롯 총 47가지 요소를 계측·제어가 가능한 일체형 수배전설비시스템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품목으로 지정된 이 제품은 올해에도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재 선정됨으로써 에너지절감에 탁월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지능형 수배전반이 이번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금지원품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요처는 이 제품을 설치할 경우 구입가격 100% 전액에 대해 연리 4.75%에 3년 거치 5년상환조건으로 최대 25억까

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동일사업자당 80억원까지 장기 저리의 설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건물 효율인증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능형 수배전반은 캐이디파워가 지난 4년전에 독자적으로 개발,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일체형 수배전설비시스템이다.



## 두산중, 국제경쟁입찰에서 우선권 획득

두산중공업이 국내 발전설비 시장개방 이후 첫 국제입찰인 당진화력발전소 5·6호기 주기기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월 3,000억원 규모의 당진 화력발전소 5·6호기의 보일러, 터빈발전기 등의 주기기 및 부속설비의 공급·설치공사 입찰에서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내 발전설비 입찰사상 최초의 국제경쟁입찰로 보일러

부문에서는 일본의 바브록히타치(BHK) 컨소시엄과 미츠비시 컨소시엄 등이 외국업체로 참여해 지난 7개월여 동안 두산중공업과 치열한 수주전을 펼쳤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당진 5·6호기 주기기 수주는 국내 발전설비기술과 가격경쟁력이 외국사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세계적인 수준임을 의미한다”면서 “향후 국내 발전설비시장의 판도를 가늠할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두산중공업은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진 화력발전소 5·6호기는 1~4호기가 건설된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료리에 건설될 예정이며 5호기는 2005년 12월, 6호기는 2006년 6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이 발전소는 기존의 500MW 표준 화력발전소와는 달리 환경친화력과 효율을 한층 높인 타입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건설되는 발전소다.

## 태광이엔시, 765kV 예방진단시스템 설치공사 체결

태광이엔시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25.5억원 규모의 765kV 예방진단시스템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오는 2003년 8월까지 신가평, 신태

백변전소에 765kV 예방진단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다. 765kV 예방진단시스템은 태광이엔시와 한전전력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시스템으로 연구개발기간은 총40개월이 소요됐다

## 한국전기연구원, 전기부품 신뢰성 평가기관 지정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권영한)은 최근 정부로부터 '전기부품 신뢰성 인증 대상품목 및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돼 피뢰기, 폴리머애자 등 핵심 전기부품에 대한 전기부품 신뢰성 인증 대상품목 및 지정평가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연구원이 수행 중인 '전기부품 신뢰성인증 대상품목 및 지정평가' 업무는 지난해 확정된 피뢰기, 폴리머애자, 2차전지, 고속전동기, 케이블, 건식변압기 등과 올해 대상품목으로 추가될 예정인 전력변환장치, 진공차단기, 개폐기, 건식변성기 등 핵심 전기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전기연구원은 특히 2003년에는 릴레이와 전력량

계, 금구류, 고압절연물 등으로 신뢰성 인증 업무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기연구원 전기부품소개 신뢰성평가센터는 핵심 전기부품에 대한 신뢰성평가 인증 업무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부품의 신뢰성 향상과 시장진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뢰성평가센터는 또 신뢰성 인증대상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신뢰성 인증 교부를 위한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전기부품의 설명서 및 구성도 등이 포함된 소정의 신뢰성인증신청서를 작성,

전기연구원 전기부품소재 신뢰성평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양식은 신뢰성평가센터 홈페이지 ([iic.keri.re.kr/reliability/index.html](http://iic.keri.re.kr/reliability/index.html))에 게시돼 있다. 전기연구원은 부품 소재 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부품의 신뢰성인증 대상품목과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